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사 지식 활용 방안 연구
— 「규원가」, 「정석가」를 중심으로

김은애 숙지고등학교 교사

- * 이 논문은 제8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6.4.18.)에서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지식 활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아낌없는 조언과 세심한 심사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토론자 정원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논문의 한계와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맺음말

I. 머리말

학교 현장에서 고전시가 교육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표기의 이질성에서부터 기인한다. 학습자는 지금과는 다른 낯선 어휘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접하게 되기에 읽는 것부터가 힘들며, 이에 작품에 담긴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거부감이나 재미없음, 지루함과 같은 감정들에 휩싸인다. 이에 교수자는 현대어 풀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습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 작품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현대어 풀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충 내용을 파악한 뒤, 평가에 주로 나올 법한 부분을 암기하며 공부한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이 지닌 심미적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부정적 태도를 고착화시켜 결과적으로 작품의 수용 및 생산 능력의 향상과 문학 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주체를 길러내고자 하는 문학 교육의 지향으로부터 학습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학습자들이 겪는 해석의 어려움과 수동적

감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이 조금 더 쉽게 고전시가 내용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작품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의미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법 지식을 의미 생성과 이해에 관여하는 정보체이자 언어 사용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문법 능력 모두를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국어사 지식이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능력 향상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국어사 지식은 무엇인가?

셋째, 국어사 지식과 연계한 고전시가 수업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고전시가 교육에서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다만, 훈고주석식 풀이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최근의 흐름은 국어사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작품의 정확한 해석은 국어사 지식을 근간으로 할 때 명확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은 자명하기에 관련 논의도 박성종(1998), 장윤희(2002)를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지은, 2007; 김사랑, 2009; 김은경, 2010; 우상영, 2013; 이승희, 2017; 김유범·하운섭, 2021; 이병기·임재욱, 2022; 이병기, 2023 등).

선행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제일 많이 언급된 작품은 「청산별곡」으로 장윤희(2002), 이지은(2007), 김사랑(2009), 이승희(2017), 김유범·하윤섭(2021)은 주로 문법 형태소에 초점을 맞추어 어구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속미인곡(정철)」(이지은, 2007), 「사미인곡(정철)」(김유범·하윤섭, 2021) 등의 가사가 있고, 향찰 표기와 관련한 「서동요」(김사랑, 2009; 김은경, 2010), 고려가요인 「가시리」(우상영, 2013), 「서경별곡」(이승희, 2017), 「동동」(이병기·임재욱, 2022), 악장 「용비어천가」(박성중, 1998), 시조 「오우가(윤선도)」(박성중, 1998), 「어부사시사(윤선도)」(김은경, 2010), 「오륜가(주세붕)」(김유범·하윤섭, 2021)등이 다루어졌다.¹⁾

이들 작품과 관련된 국어사 지식은 작품 개별로 달라지는데, 표기 및 음운, 음운 현상,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제 표현과 관련된 지식 뿐만 아니라 개별 어휘의 의미에 대한 지식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승희(2017: 375)는 텍스트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대 국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화자 주어 표시 선어말 어미 ‘-오-’, 허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 동사의 부정법과 과거 시제,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습-’, ㅎ종성체언,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구별 등의 학습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시가와 국어사 지식의 연계 방향으로는 김유범·하윤섭(2021: 55-68)에서 고전시가의 해석적 오류를 교정하거나, 해석적 선택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감상이 가능함을 보였다.

선행 연구의 공통적인 주장은 고전문학 작품과 국어사 지식이 통합될 경우 교육적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으로, 국어사 지식이 정교한 문학적 해석의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 모든 국어사 지식을 가르치는

1) 고전산문의 경우 박성중(1998)에서 「홍길동전」, 「춘향전」을, 김은경(2010)에서는 「동명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어사 지식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별 작품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다룬 작품의 갈래나 연구 방법은 대부분 고려가요, 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는 이지은(2007)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고는 이론적으로 제안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아, 국어사 지식이 작품 이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돕는 자원임을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교수 설계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고전시가를 보다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고는 연구자가 근무 중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인문계 S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시기는 2025년 2학기 2차 지필평가(12월 2주)가 모두 종료된 후의 수업 시간을 활용하였는데, 이 기간이 비교적 자율적인 수업이 가능한 시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여부가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4개 학급 총 39명의 학생이 자원하였고, 2025년 12월 3주에서 2026년 1월 1주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은 후, 연구가 종료된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략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정보

구분	범주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16	41
	여자	23	59
내신 등급 (2학년 2학기 말)	상위권(1~2등급)	9	23
	중위권(4~6등급)	27	69
	하위권(7~9등급)	3	8
모의고사 등급 (25년 10월 기준)	상위권(1~2등급)	5	13
	중위권(3~6등급)	26	67
	하위권(7~9등급)	8	21
합계		39	100

연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고르게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당해 학기에 문학 과목을 배운 상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다. 〈표 1〉의 내신 등급은 2학년 2학기 문학 과목에서의 학기말 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모의고사 등급은 연구 당시 가장 최근에 치른 2025년 10월 모의고사(경기도교육청 주관)의 국어 영역 성적을 기준으로 상·중·하 수 준별로 고르게 지원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진단 및 수업 설계, 적용,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흐름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단계별 세부 내용 및 방법

단계 (시기)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진단 (12월 3주)	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 고전시가 관련 학습자 실태 파악 - 인지적, 정의적, 수업 설계 측면	설문 조사
설계 (12월 3주~4주)	핵심 문법 요소 선정 및 수업 설계 • 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과 직결된 국어사 지식 선정 - 중세국어 의문문 체계를 통한 표현법과 표현 효과의 관계 - 선어말어미 ‘-오-’를 통한 1인칭 화자의 목소리 파악 및 내용 이해 • 작품 선정 및 수업 설계 - 가사 「규원가」, 「관동별곡」 - 고려가요 「정석가」, 「가시리」, 「청산별곡」	문헌 연구
적용 (12월 4주)	중세국어 의문문과 「규원가」, 「관동별곡」 통합 수업 • 중세국어 문법 관련 설명 - 사전 진단(Q3~Q10) 기반 국어사 지식 학습(표기법, 음운, 음운현상, 어휘) • 의문문 체계(판정/설명 의문문 ‘가/고’계 종결 형태, 2인칭 의문형 어미 ‘-나다’) 설명 • 「규원가」에서 관련 부분 찾고 내용 이해, 표현 효과 파악 • 정철, 「관동별곡(일부)」 적용 및 피드백	실행 연구
	1인칭 화자표시 선어말어미 ‘-오-’와 「정석가」, 「청산별곡」, 「가시리」 통합 수업 • 1인칭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 설명 • 「정석가」에서 관련 부분 찾고 정서 및 표현 효과 파악 • 「서경별곡」, 「가시리」로 적용 및 피드백	실행 연구
평가 (2026. 1월 1주)	사후 설문 및 인터뷰 • 사후 설문 조사 실시 • 설문 응답 기반 인터뷰 실시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설문 조사, 인터뷰

진단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고전시가 학습 실태 및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학습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전시가 작품 수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어사 지식만을 선별하였다. 이에 중세국어 의문문 체계(판정/설명 의문문 ‘가/고’계 종결 형태, 2인칭 의문형 어미 ‘-나다’),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작품의 정서와 표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²⁾ 수업 설계 시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탐구 시간과 활동 결과에 대해 개별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대상 작품으로는 1차적으로 기학습 제재인 「규원가」와 「정석가」를 선정하였다(조정래·정호승·곽재구 외, 2018: 82-85, 192-196). 이는 익숙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어사 지식의 활용이 작품의 깊이 있는 수용에 기여하는 양상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다. 이어서 미학습 제재인 「관동별곡」, 「가시리」, 「청산별곡」을 추가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지식의 전이 및 적용 능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평가 단계에서는 사후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학습자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사전/사후 설문지 및 인터뷰와 수업 활동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근거하여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수업 설계 및 기타로 범주화하고, 각각 국어사 지식 및 해석 역량, 학습 태도 및 흥미, 수업 요구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선행 연구(이지은, 2007: 31-34; 우상영, 2013: 1-2 등)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³⁾

2) 사전 실태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상술한다.

3) 문항의 일부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사전 Q3. 고전시가의 ‘이어적기(연철)’ 표기를 볼 때, 원래의 단어(형태소)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기피’를 보고 ‘깊-+-이’를 떠올리는 과정 등)

- ① 매우 쉽다 ② 대체로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사후 문1. 국어사 지식이 고전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측정 방법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리커트 척도, 서술형 응답과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혼합하여 데이터의 다각화를 꾀하였다. 서술형 응답(사전 14번, 사후 10번, 11번)의 경우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코딩한 후 수량화 및 연구자의 해석을 거쳤다. 또한 설문 조사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업 적용 단계에서 제공된 학습자의 수업 활동지를 참고하여 국어사 지식이 작품 해석 역량으로 전이되는지 확인하였다.

사전 설문 문항은 학습자의 결핍 지점을 포착하여 수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표 3>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 3> 사전 설문지 구성 내용

범주	문항 내용	문항번호	측정방법
정의적 영역	고전시가에 대한 주관적 난이도	Q1	5점 리커트
	장형 시가(가사)에 대한 반응	Q12	
	문법-문학 연계 학습에 대한 기대	Q13	
인지적 영역	이어적기(연철)에서 형태소 분석	Q3	5점 리커트
	어두자음군	Q4	
	소실문자(·, △, ▢) 음가	Q5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Q6	
	어휘 의미 변화	Q7	
	조사와 관련된 문장 성분 파악	Q8	
	종결어미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 판단	Q9	
	선어말어미의 기능	Q10	
수업설계 및 기타	고전시가 학습 시 장애 요인	Q2	선택형(복수)
	고전시가 학습 방법	Q11	선택형
	기타 요구사항	Q14	서술형

〈표 3〉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업 내용은 학습자의 현행 교육과정과 관련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 및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강규영, 2024; 김사랑, 2009; 김유범·하운섭, 2021; 김지오, 2018; 박보현, 2011; 신재홍, 2022; 이관규·박경희·신호철 외, 2019; 이병기, 2023; 이상숙, 2024; 이승희, 2017; 이정선, 2016; 임재욱, 2010; 임주탁, 2003 ㄱ, 2003 ㄴ; 임태성, 2020; 장윤희, 2002; 조하연, 2024; 최선경, 2012; 하정훈, 2022).

이후 수업을 진행한 후 사후 설문으로 학습 태도 및 심리적 변화, 학습 성과 및 역량 변화를 측정하여 본 연구가 학습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표 4〉와 같이 문항을 설계하였다. 사후 설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 3명을 제외한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⁴⁾

〈표 4〉 사후 설문지 구성 및 문항 내용

범주	문항 내용	번호	측정 방법
정의적 영역	국어사 지식의 고전시가 이해 기여도(유용성)	문1	5점 리커트
	국어사 지식을 문장 해석의 논리적 도구로 받아들이는 태도	문2	
	문법 탐구 과정의 즐거움	문5	
	재미있고 흥미있는 국어사 지식	문8	순위 부여형
인지적 영역	의문형 규칙을 새로운 문장에 적용 가능 여부	문3	5점 리커트
	선어말 어미 ‘-오’를 통한 화자의 목소리 집중 여부	문4	
	국어사 지식의 영역별 난이도	문7	순위 부여형
수업 설계 및 기타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국어사 지식 영역	문6	순위 부여형
	국어사 학습의 적절한 시기	문9	선택형(전/중/후)
	기억에 남는 국어사 지식	문10	서술형
	수업 관련 자유 응답	문11	
인터뷰	응답 근거 및 심층 반응 분석	전 문항	면담(반구조화)

- 4) 사전 설문 문항은 15개, 사후는 11개로 다르게 구성한 이유는 사전에는 기초 실태 파악을 위한 배경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사후에는 수업 처치에 따른 실질적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 문항 위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표 4〉에서 순위 부여형으로 측정한 문항(문 6,7,8)은 학습자 반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순위를 허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상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사전 조사, 수업 설계, 수업 중 학습자 반응 및 사후 분석의 순으로 기술하겠다.

1. 사전 학습자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수업 설계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설문 결과,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를 스스로 해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 태도를 보였으며, 유기적인 감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표 5〉 고전시가에 대한 인식(사전)

문항 (번호)	분류 및 세부 문항 내용(응답 수)		빈도 (명)	비율 (%)
고전시가에 대한 주관적 난이도(Q1)	긍정	① 매우 쉽고 흥미롭다(0명) ② 대체로 이해할 만하다(7명)	7	18.0
	중립	③ 보통이다	16	41.0
	부정	④ 어렵고 부담스럽다(15명) ⑤ 매우 어렵고 거부감이 든다(1명)	16	41.0
장형 시가(가사)에 대한 반응(Q12)	부정적 (정서적 거부감)	① 읽기 전부터 지루함과 막막함을 느낀다(8명)	8	20.5
	인지적 장애 (관련 지식의 부재)	② 화자의 상황이 현대인과 달라 공감이 되지 않는다(1명) ③ 한자와 옛말 표기 때문에 읽기 자체가 불가능하다(8명) ④ 부분적으로는 이해되나 전체 맥락을 잇기 어렵다(14명)	23	59.0
	수용적 (의미 파악 의지)	⑤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든다(8명)	8	20.5

고전시가 영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부담스럽다는 부정적 반응과 유보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Q1). 이는 「규원가」나 「정석가」와 같은 다소 길이가 긴 작품을 접할 때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느끼는 반응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표 5〉 Q12), 읽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되거나 전체 맥락을 잇기가 어렵다는 반응 등 인지적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59%로, 지루함, 막막함과 같은 정서적 거부감을 느끼는 비율(20.5%)까지 합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79.5%로 상당히 높다.

〈표 6〉 고전시가 학습 시 장애 요인(Q2,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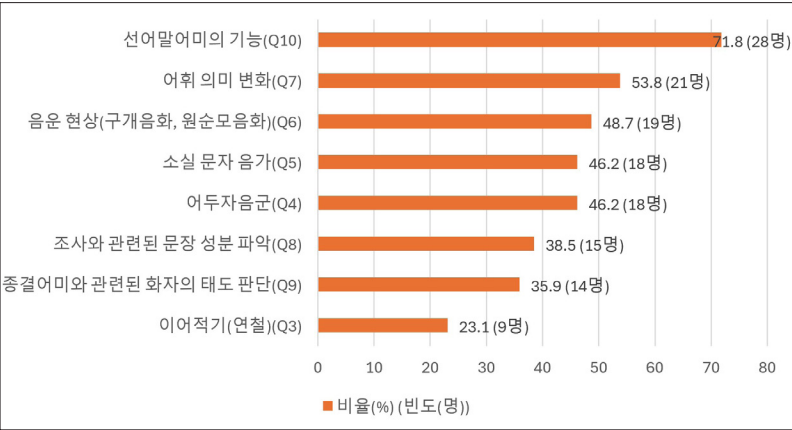
문항 분류 및 세부 문항 내용(응답 수)		빈도(명)	비율(%)
언어적 요인	① 낯선 어휘와 한자어(31명) ② 현대와 다른 문법 구조(어미, 조사 등)(18명)	49	125.6 ⁵⁾
문학적 요인	④ 주제나 화자의 정서 파악(4명) ⑥ 표현법 이해(2명)	6	15.4
외적 요인	③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습 이해(1명) ⑤ 작품의 길이(가사 등)(4명)	5	12.8

고전시가 학습 시 장애 요인을 확인하는 문항(〈표 6〉)은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복수 응답을 허용했는데, 이를 통해 복합적인 결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장애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어휘와 문법 구조 등 언어적 요인(125.6%)이 작품 내용(15.4%) 및 외적 요인(1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⁶⁾ 언어적 요인 중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국어사 지식의 내용은 〈그림 1〉로, 선어말 어미의 기능(71.8%) > 어휘 의미 변화(53.8%) > 음운 현상(48.7%)의 순

5) Q2는 복수 응답 문항으로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한다.

6) 복수 응답 중 어휘와 문법 구조 파악의 어려움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1, 2번 동시 선택 10명). 이를 보아 어휘력 부족과 문법적 구조 파악의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나타났으며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1명)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결손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이어적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비중이 낮았다.⁷⁾



〈그림 1〉 국어사 지식 난이도(문항번호)

다음으로 수업 설계와 관련된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고전시가 학습 방법 및 문법 연계 학습에 대한 기대

문항(번호)	세부 문항 내용	빈도(명)	비율(%)
고전시가 학습 방법 (Q11)	① 현대어 해석본을 무조건 암기한다	14	35.9
	② 주요 단어와 문법 요소의 의미를 먼저 공부한다	8	20.5
	③ 작품의 배경 설화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찾아본다	8	20.5
	④ 무작정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본다	5	12.8
	⑤ 기타	4	10.3

7) 사후 인터뷰에서 해당 이유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 ‘이어적기(연철)’의 경우 ‘소리내어 읽어보면 대충 이해가 된다’는 학생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문법 연계 학습 기대 (Q13)	①,② 긍정(약간/매우 도움이 될 것)	34	87.2
	③ 보통이다	4	10.3
	④,⑤ 부정(전혀/별로 도움이 안 될 것)	1	2.6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를 학습할 때 능동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작정 여러 번 읽거나(12.8%) 지습서나 교사의 설명을 그대로 암기하는 모습(35.9%)을 보인다(<표 7> Q11). 이는 스스로 읽어낼 힘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인 반면, 국어사 지식을 연계한 학습이 고전시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87.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볼 때(<표 7> Q13), 학습자는 기존의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원리를 통해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함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는 학습 시 요구 사항(Q14)을 서술형으로 응답한 1)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⁸⁾

1) 고전시가 학습 시 요구 사항

(1) 내용 이해(19회)를 위한 어휘 의미 파악(18회), 문법 및 구조적 원리

이해(9회) 요구

-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고전시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전33)
- 고전문법을 알고 있으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전문법이나 어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전6)
- 시 내용의 이해를 위해 현대어와 다른 고전 어휘를 알려주거나 없어진 글

8) 키워드 빈도를 집계하되, 한 답변 내 복수 키워드는 각각 반영하였다. 주요 응답 내용은 학생의 응답 중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였고, 괄호 안은 응답을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번호이며 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자들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전10)

- 해석을 잘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다.(전19)

(2) 태도, 정서 파악(4회) 및 표현상 특징 파악(10회) 요구

- 기녀들의 시조에서 자주 드러나는 특징과 같이 고전시가의 주제, 정서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다.(전28)
- 표현상의 특징, 정서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다.(전22)

(3) 해석 방법 학습으로 전이 능력 습득(6회) 요구

- 처음 보는 고전시가를 어떻게 해석하면 쉬운지 알고 싶다.(전11)
- 낯선 어휘의 뜻 알려주기,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문맥을 통해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고 싶다.(전37)
- 단순히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사용된 어휘, 고사 등을 자세히 알아보며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 받고 싶다.(전4)

(4) 그 외

- 길이가 긴 작품은 나눠서 조금씩 해설해 주면 좋겠습니다.(전38)
-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을 때 도움이 된다.(전28)

학습자들의 답변에서 중복되는 의미를 추출하여 키워드별로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9회), 이를 위한 해석 도구로써 어휘, 문법, 표현상 특징 등의 관련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은 고전시가를 스스로 이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현대어 해석본을 무조건 암기하는 수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낯선 어휘, 음운 현상, 소설 문자의 음가, 선어말 어미의 기능 등 국어사 지식의 결손에 우선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현대어 풀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전체 맥락을 놓치는 한계에 부딪혀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암

기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으로서의 국어사 지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어사 지식과 문학의 통합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감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국어사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해석(현대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 이해와 수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고의 제안이 적절한 시도임을 보여준다. 특히 ‘스스로 해석’이나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다는 학습자의 요구는 교사 주도의 풀이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문법적 단서를 활용한 탐구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로 길이가 긴 작품의 경우, 학습자의 심리적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용을 세분화하여 학습량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설문 결과(〈표 5〉 Q12)에서 ‘④ 부분적으로는 이해되나 맥락을 잇기 어렵다’는 응답(14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편적인 어휘 습득만으로는 작품의 총체적인 감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사전 조사에서 어휘 학습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으나, 본고는 단편적 어휘 암기가 고전시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개별 어휘뿐만 아니라 이들을 문맥으로 엮어주는 의미의 실타래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나 선어말 어미 등 현대와는 다른 문법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고의 수업 설계는 어휘가 문장 내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인 문법적 표지를 핵심 기제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2. 수업 설계: 핵심 요소 선정 및 근거

앞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고전시가의 능동적 감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어사 지식을 수업 설계의 핵심 요소로 선정하였다.

첫째, 중세국어의 의문문 체계에 주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고전시가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설의, 영탄, 의문’의 수사적 충위를 판별하기 위한 선

행 조건이다. 학습자는 의문형 어미를 찾아 내용을 해석한 후, 해당 구절이 단순 의문인지 아니면 설의적 표현인지를 판단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의 이해와 아울러 표현 효과를 생각해 보게 된다.

둘째, 선어말 어미 ‘-오-’를 통한 화자의 목소리 파악이다. 문학 작품 수용에서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는 선행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때 선어말 어미 ‘-오-’는 화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찾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화자가 행하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설계는 현대어 풀이 암기나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 해석의 근거로서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능동적 감상을 지향한다.

수업에서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진단(Q3~10)을 기반으로 하여 고전시가 독해 시 필요한 국어사 지식을 개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어적기, 함용병서, 소실 문자(、, △, ▢, ○)의 음가 등 표기, 음운 관련 사항과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단모음화, 경음화 등의 음운 현상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녀다(行), 흥다(爲):하다(多), 어여쁘다(憫), 동다(好):좋다(淸)’ 등의 어휘 목록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규원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의문형 어미/보조사’ 체계를 설명한 후, 학습자들이 본문에서 해당 문법 요소가 활용된 구절을 직접 찾고 의문문 형식이 화자의 원망과 한탄을 강조하는 수사적 의문(설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문법 형식이 표현 효과 및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살펴보았다. 이어 학습자들의 적용 능력을 알아보기로 미학습 제재인 정철의 「관동별곡」의 앞부분을 발췌하여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대조하여 제시하되, 본 차시에서 다룬 문법 요소와 관련된 구절을 빈칸으로 구성하여 직접 해석(현대어역)하게 한 후 개별 피드백을 실시하고 지식의 내면화 정도를 확인하였다.⁹⁾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2)와 같다.

9) 「관동별곡」의 경우 문학사적 위상과 내용의 깊이, 분량을 고려하면 주어진 수업 시간 내

2) 중세국어 의문문과 「규원가」 통합 수업

(1) 「규원가」에서 의문문 찾고 화자의 정서, 표현 효과 파악하기

「규원가」 본문 및 교육 의도

- 삼삼오오(三三伍伍) 아유원(治遊園)의 새 사름이 나단 말가
- 곳 피고 날 저든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무논고
-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고
- 녀름날 길고 긴 제 구존비는 므슴 일고
- 바람의 지는 님과 플 속의 우는 잠침
므슴 일 원수(怨讐)로써 좀조차 식오논다
- 우리 님 가신 후(後)는 므슴 약수(弱水) 그렸관디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논고
- 박명(薄命)헌 홍안(紅顔)이야 날 그튼니 또 이실가

〈의도〉 발화 상황에 따른 관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분류, 2인칭 의문문 해석을 통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입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 파악을 유도함.

-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귀소나
-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 스스로 참괴(慙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랴
- 인연(因緣)을 꾀쳐신들 심각이야 업슬소나

〈의도〉 설의로 해석될 수 있는 의문문으로 화자의 원망,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자 함.

(2) 「관동별곡(앞부분)」 적용하기

「관동별곡」 본문 및 교육 의도

- 慶敬會南門문 바라보며
- 孤고臣신去거國國에 白鬚髮발도 하도 할사
- 營營中동이 無무事스 하고
- 行行裝裝을 다 썰티고 石硯硯경의 막대 디퍼
- 百浬川천洞동 거티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 銀은 그튼 무지개
- 形형容容도 그지업고 體體勢勢도 하도할사
- 黑흑水水로 도라드니
- 풍악(楓岳)으로 버더잇다
-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의도〉 연철(이어적기) 및 소설 문자, 음운 현상, 어휘 의미를 활용하여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에 다 다루기 힘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내용을 한정하여 서사부터 금강산 유람 중 일부분을 다루었다. 이때, 먼저 본문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하였다. 이상의 수업은 반별로 수준차가 있어 2~3차시까지 진행한 반도 있었다.

- 蟾蜍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악이 여기로다
- 昭示陽양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 弓궁王왕 대대闊闊 티희 烏오雀작이 지지괴니
千천古고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 놈흘시고 望望高고臺臺 외로올샤 穴혈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른다
- 어와 녀여이고 너 古古니 쏘 잇는가
- 毗毗盧로峯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보니 괴 뉘신고

〈의도〉 발화 상황에 따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분류, 2인칭 의문문 해석을 통한 내용 이해 여부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총절의 강조 등의 표현 효과를 파악하도록 유도함.

이어 다음 차시에는 화자 주어 표시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 형태소 분석의 예를 보인 뒤, 「정석가」에서 해당 부분을 찾으며 문장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입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동일 갈래의 「청산별곡」과 「가시리」로 학습자들의 적용 능력을 파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 차시에 학습한 의문문 관련 지식의 통합적 활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관련 내용은 3)과 같다.

3) 1인칭 화자 표시 선어말어미 ‘-오-’와 「정석가」 통합수업

(1) 「정석가」에서 화자 표시 선어말어미 ‘-오-’를 통한 화자의 목소리와 정서 파악하기

「정석가」 본문 및 교육 의도

- | | |
|---------------------|------------------------|
| •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 • 옥(玉)으로 련(蓮) 사고줄 사교이다 |
| • 바회 우희 접두(接柱) 호요이다 | • 철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
| •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 |

〈의도〉 화자 주어 표시 선어말 어미 ‘-오-’ 분석 후 내용 이해(화자의 실천이 두드러짐,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함)

(2) 「청산별곡」, 「가시리」 적용하기

「청산별곡」 본문 및 교육 의도	
• 날라와 시름 한 나도 〈의도〉 어휘 의미 변화 파악	
• 자고 니러 우니노라 • 마자서 우니노라 • 애정지 가다가 드로라 • 가다니 빈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의도〉 형태소 분석으로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를 통한 내용 이해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바므란 쏘 엇디호리라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 奚琴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가시리」 본문 및 교육 의도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날라는 엇디 살라 하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의도〉 발화 상황에 따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분류 후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애절함 등의 정서를 느끼도록 유도함. -첫 행의 ‘가시리잇고’의 경우 의문사 일부분이 끊겨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나타난 것을 뒷부분을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설은 님 보니옵노니 (비교: 설은 님 보니옵느니) 〈의도〉 형태소 분석으로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 파악, 작품 전체 맥락에서 드러나는 이별의 정한(情恨)과 화자의 태도 파악	

3. 사후 설문 및 인터뷰 분석

이렇게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 과정에서 수집된 학습자 산출물과 사후 설문의 주관식 기술 내용을 상호 참조하여 국어사 지식이 학습자의 인지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의 도구로 내면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허난설헌의 「규원가」로 중세국어의 의문법을 배운 후 정철의 「관동별곡」의 원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활동지를 분석한 결과, 오답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학습자의 구체적인 반응을 사후 설문의 서술형 응답에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¹⁰⁾

10) ‘문10. 가장 기억에 남는 국어사 지식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에 대한 서술형 응답이다.

-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2인칭 의문형 어미. 배운 문법 중에서 가장 이해가 잘 되었고, 앞으로 내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 문법이어서 기억에 남는다.(후3)
- 의문문에 대해 배운 것이 기억에 남았고, 특히 2인칭 판정, 설명 의문문 ‘-ㄴ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어적기나 음운 현상 등은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다. 규원가의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느다’에서 해석본에서는 ‘깨우는가’인데 왜 ‘깨우느다’라고 쓰는지 이유도 모르고 외우기만 했는데 배우고 나니 더 기억에 남는다.(후30)
- 설명의문문 ‘고’의 사용이 흥미로웠다. 아직 사투리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궁금하기도 했고 사투리와 잘못된 사용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후33)
- 판정의문문, 설명 의문문에서 쓰이는 어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이유는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설의법인지 의문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번엔 배운 문법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후13)

국어사 지식을 통해 학습자는 고전시가의 낯선 표기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후3). 또한 ‘깨오느다’에 대해 이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외웠으나, 이제는 2인칭 의문형 어미라는 규칙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학습자의 답변(후30)은 유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식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져서 화자의 의도가 질문인지 아니면 설의를 통한 강조인지를 깊이 있게 향유하는 능동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후13). 이는 고전시가의 내용을 수용하는 데에 국어사 지식이 ‘해석 도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준다. 덧붙여서 ‘-ㄴ가/-ㄴ고’의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형식이 현재 경상도 방언에도 남아 있는 점을 통해 국어의 역사성과 아울러, 인터넷 용어에서의 무분별한 ‘-오’ 사용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등 흥미로워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후33).

다음으로, 고려가요 「정석가」에서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많은 학생들이 ‘-오-’가 화자 파악의 단초가 되며, 화자의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여 국어사 지식을 통해 문학적 공감으로의 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국어 의문문에 비해 화자 표시 선어말어미 ‘-오-’는 학습자들이 다소 어려워했다. 이는 ‘십고이다(십-+-오-+-이-+-다), 사교이다(사기-+-오-+-이-+-다)’와 같이 낯선 어휘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일인칭 화자표시 선어말 어미 ‘-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은 ‘나’와 같은 단어가 없으면 화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1인칭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를 배우며 시의 화자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후6)
- 중세국어 선어말 어미 ‘-오-’가 기억에 남는다. 이유는 이런 문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서 신기했으며 또 이걸 알게되니 1인칭 화자를 나타낸다는 힌트도 알 수 있고 문학을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후14)
- 선어말 어미 ‘-오-’가 기억에 남는다. 이것을 알게 되어 화자가 누구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화자의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이다.(후17)
- 선어말 어미 ‘-오-’ 부분에서 모든 ‘오’가 있는 부분은 다 1인칭이 아니므로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짜잘짜잘한 수업 덕분에 확실히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후27)¹¹⁾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고려속요 등의 고전시가는 공인된 국어사 지식만으로 해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판본 시기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이는 연구자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로, 수업 설계 시 국어사 지식을 적용하여 현대어역(해석)이 가능한 예문을 제공할 때 상당히 고심하였고,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하였다. (후27)의 학습자 반응은 선어말 어미 ‘-오-’의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점을 잘 보여준다. ‘-ㄴ다’ 역시 17세기 정도부터 의문형과 평서형이 함께 나타나므로 작품을 다룰 때에는 판본 시기와 전체 맥락을

다음으로 본 수업 설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 설문 및 인터뷰 결과,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양상에 유의미한 인지적·정의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표 8〉 사후 설문에서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 반응

분석 범주	세부 항목(문항)	빈도(명)	비율(%)
정의적 영역	국어사 지식의 고전시가 이해 기여도(유용성)(문1)	34	94.4
	국어사 지식을 문장 해석의 논리적 도구로 받아들이는 태도(문2)	35	97.2
	문법 탐구 과정의 즐거움(문5)	25	69.4
인지적 영역	의문형 규칙을 새로운 문장에 적용 가능 여부(문3)	29	80.6
	선어말 어미 ‘-오-’를 통한 화자의 목소리 집중 여부(문4)	26	72.2

국어사 지식이 고전시가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의적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94.4%의 높은 만족도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며(〈표 8〉 문1), 이때 국어사 지식은 고전시가의 실질적인 해석에 도움을 주는 논리적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8〉 문2). 다만, 탐구의 즐거움은 69.4%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는데(〈표 8〉 문5), 이는 문법 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인지적 노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문형 어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본 문항(문3)과 특정 문법 표지(‘-오-’)를 통해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문항(문4)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이 각각 80.6%, 72.2%로 나타나 국어사 지식 기반 접근이 고전시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학습자의 능동적 감상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국어사 지식이 작품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와 위치를

고려하여 연구사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에게도 이런 점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추적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¹²⁾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학습자가 외부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게 하는 인지적 토대가 되었음을 다음 자유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 그동안은 고전시가를 배울 때 일정한 형식 없이 그저 소리나는 대로 읽어보
며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고전시가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문법적 측면에서 고전시가에 다가갈 수 있어 무
척 흥미로웠고, 고전시가에 대한 일정한 틀이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앞으로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선 끊어적기로 문장을 이해해보
고 해석이 어려우면 음운 현상을 고려하며, 서술어의 형태를 살펴보는 과정
을 거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후6)
- 문법은 잘 몰라도 될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문법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후4)
- 학원을 다니거나 문학 공부를 자세히 해본 적이 없다보니 그저 여러 번 읽어
보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배워보니 읽는 법도 알게 되어 3학년 공
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후5)
- 이 수업은 고전시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
접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하면 글을 이
해하기 수월해질 것이다.(후17)

다음으로, 교수 설계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국어사 지식의 개별 영역에 대한 정서적 선호도(흥미), 이해 난이도, 실제 독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지식과 관련된 효용성 순위를 물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12) 위와 같은 높은 만족도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나온 반응이 아니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본고의 높은 만족도 결과는 학습 동기가 부여된 이들에게 국어사 지식이 어느 정도의 최대치 효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 설계 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9〉 국어사 지식 영역별 학습자의 인식 비교(순위)

영역	효용성(문6)	난이도(문7)	흥미(문8)
단어(-오-)/문장(의문문)	2위	1위	2위
어휘	1위	2위	1위
음운 현상	4위	3위	3위
표기법	3위	4위	4위
음운	5위	5위	5위

〈표 9〉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어려운 지식이 오히려 학습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높은 난이도를 보이는 국어사 지식에 대해 역설적으로 깊은 흥미를 보였으며, 이것이 실제 실력 향상에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세국어 의문문 및 선어말어미 ‘-오-’와 관련된 ‘단어/문장’ 영역과 ‘어휘’ 영역은 난이도 측면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재미를 느끼는 영역이자 학습 효능감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난이도와 흥미의 공존은 해당 지식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극명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 응답 및 인터뷰 내용으로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롭게 접하는 국어사 지식이 고전시가 수용에 도움이 됨

-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후13 인터뷰)
- 선어말어미 ‘-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배우는 문법이고 현대어로 해석할 때 대충 넘겼는데 사라진 선어말어미라고 하니 이해가 간다.(후34)

(2) 현대와 다른 내용이 흥미를 높임

- 현대와 아예 쓰임이 다르거나 뜻이 다른 단어를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평소 자주 쓰던 말들이 고전시가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하여 가장 기억에 남았다.(후2)

(3) 타 작품으로 전이가 높은 내용이 도움이 됨

- 구개음화, 단모음화 같은 것은 한번 들었을 때 적용하기 쉬워 내용 이해에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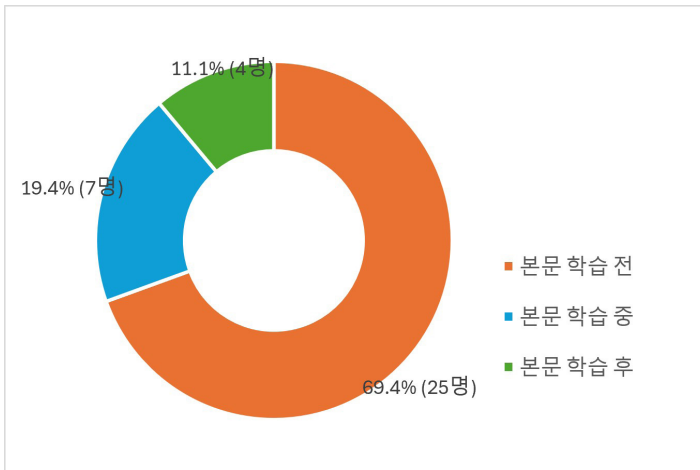
(4) 형태소 분석을 직접해 보는 과정은 어렵지만 재미를 느끼게 함

- 의문형 어미, 설의법,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셔서 가장 많이 봤던 문법이었고, 또 맨처음에는 몰랐지만 조금씩 배우고 계속 찾아보면서 조금씩 더 많이 찾고 실력도 높아가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이 문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후27)

(5) 교사의 설명이 필요한 지식이 도움이 됨

- 아무래도 어휘, 음운을 혼자 읽다보면 유추할 수는 있지만, 단어문장 예를 들어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등 이런 개념은 혼자 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어문장에 대해 배운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다.(후15)

수업 설계와 관련하여 국어사 학습 시기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어사 지식 학습 시기

과반수의 학생들이(<그림 2> 69.4%) 고전시가를 학습하기 전에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나, 학습 중간이나 후에 배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자유 응답 및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수업 전 희망]

- 본문을 배우기 전에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 배우지 않고 본문을 학습 후 배운다면, 본문을 처음부터 어렵게 접하게 되어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후7)
- 고전시거나 소설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은 단어장들을 수업 전에 나눠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후31)

[수업 중 희망]

- 문법지식을 본문 학습 전에 알려주면 까먹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는게 낫고, 본문 학습 후에 배우면 적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후35 인터뷰)

[수업 후 희망]

- 수업 중에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어 좋았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을 다시 되짚어 보니 더욱 이해가 잘 되었다.(후1)
- 선어말 어미 ‘-오-’가 기억에 남는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고전시가라 문법을 새로 배워도 그나마 적용하기 쉬웠고 깊이 들여다보니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조금 더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후4)
- 내용 이해 후 문법을 배우는 게 더 나아요. 설의법과 의문문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후34 인터뷰)

학습자의 반응은 이들의 이해도나 학습 내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시기가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어사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국어사 지식을 영역별로 위계화하여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의 국어사 지식은

본문 학습 전에, 작품의 표현 효과나 화자의 의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은 본문 학습 중 혹은 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현대어 풀이(기초) - 문법적 단서 포착(심화) - 심층적 정서 수용(확장)’의 단계별로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내용별 위계] 국어사 지식의 위계 설정

- 본문 학습 전: 표기법, 음운 및 음운 현상, 기초 어휘의 의미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본문 학습 중/후: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등 심화 문법 요소를 작품 분석과 연계하여 설명(탐구)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수용과 이해를 도모하여 표현 효과, 의도 파악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함.

[선추론-후탐구] 문장/단어와 관련한 국어사 지식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대략적인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의미를 확정짓는 근거로 국어사 지식을 이용하는 방안

1단계 (기초)	현대어 풀이	표기법, 음운 및 음운 현상, 기초 어휘 의미를 기반으로 한 현대어 풀이를 통해 전체적인 정서와 상황을 파악함.
2단계 (심화)	문법적 단서 포착	‘왜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그 근거로서 국어사 지식(예: 의문형 어미의 체계,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해석의 근거를 발견하도록 유도함.
3단계 (확장)	심층적 정서 수용	관련 국어사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사 지식을 알기 전의 해석’과 ‘안 후의 심층적 해석’을 비교하는 활동을 배치함. 이를 통해 표현법과 표현 효과를 파악하며 화자의 심리에 더 깊이 공감하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체적 감상을 도움.

V. 맺음말

본고는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작품 수용 능력을 제고하고자, 작품 해석의 핵심 자원인 국어사 지식을 체계화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본고의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사 지식이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인지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나 효용감 측면의 정의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어사 지식이 작품 해석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문학적 감상을 정교화하는 단서이자 해석의 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능력 향상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국어사 지식은 무엇인가?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상황, 내용 이해와 직결되는 국어사 지식이 학습자들의 작품 수용 능력을 높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사 지식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표기법, 음운 및 음운 현상, 기초 어휘의 의미와 같이 고전시가를 읽어내도록 도움을 주는 지식과 표현법 및 화자의 의도, 표현 효과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을 작품의 내용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셋째, 국어사 지식과 연계한 고전시가 수업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떠한가?

본고에서는 작품의 수용과 감상의 근거를 발견하는데 국어사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어사 지식의 내용별 위계를 설정하여 현대어 풀이(기초) → 문법적 단서 포착(심화) → 심층적 정서 수용(확장)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정리하자면, 본고의 논의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한 인간 삶의 이해

와 심미적 정서 함양이라는 문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문학 능력의 향상에 국어사 지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어사 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 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론적인 도구로써 국어사 지식이 제시될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됨을 보여준다. 즉,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상황, 내용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법 지식은 암기 대상이 아니라, 작품 속 화자의 목소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실천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체적 감상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작품 내용에 기반한 논리적 확산 위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된 국어사 지식은 학습자에게 감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본고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수업 처치를 통한 연구로 실행되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어사 지식과 문학이 별개의 단원으로 분절된 현재의 교과서 구성을 극복한, 문법-문학 통합 단원의 구성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선어말 어미 ‘-오-’와 중세국어 의문문 체계 외에도, 시제, 높임 표현 등 감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법 요소들에 대한 실행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6.04.29. 투고되었으며, 2026.05.13. 심사가 시작되어 2026.06.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규영(2024), 「한국어 의문문의 형식과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사랑(2009),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범·하운섭(2021),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 『국어교육학연구』 56(4), 43-86.
- 김은경(2010),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국어사 교육내용 선정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오(2018), 「고려가요의 문법 -쟁점이 된 특이 형태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0, 29-67.
- 박보현(2011), 「중세 국어 의문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 15, 97-124.
- 박성중(1998),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 53-80.
- 신재홍(2022), 「청산별곡의 주제와 의미 맥락」, 『고전문학과 교육』 49, 143-182.
- 우상영(2013), 「중세국어 문법과 고전시가의 통합교육 모형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하성욱(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경기: 비상교육.
- 이병기(2023),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 국어 문법 교육」, 『국어사연구』 37, 53-85.
- 이병기·임재옥(2022), 「동동을 이용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통합적 교육」, 『한국어문교육』 39, 99-138.
- 이상숙(2024), 「〈규원가〉의 시대적 향유방식과 의의」, 『어문연구』 120, 147-169.
- 이승희(2017), 「古典詩歌 텍스트를 활용한 國語史 教育 內容選定の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高麗歌謠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5(4), 375-399.
- 이정선(2016), 「〈鄭石歌〉의 소재의 의미와 구조로 본 사랑과 그 한계」, 『영남학』 29, 313-340.
- 이지은(2007), 「고전 이해 능력을 위한 문법 형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옥(2010), 「고전시가 작품에 사용된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 『한국시가연구』 29, 331-367.
- 임주탁(2003 ㄱ), 「〈정석가〉의 함의와 생성 문맥」, 『한국문학논총』 35, 25-49.
- 임주탁(2003 ㄴ),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한국시가연구』 13, 75-109.
- 임태성(2020), 「『관동별곡』의 인지시학적 연구」, 『담화와인지』 27(4), 101-126.
-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381-404.
- 조정래·정호승·곽재구·박상률·유문선·노철·강성도·공정배·김근성·김민혁·김형태·문성후·박길제·박병욱·박성일·박안수·오창렬·이남희·임희중·정의창·정홍운·조은희·지범식·진기춘·차지혜·최홍일·황은주(2018), 『고등학교 문학』, 서울: 해냄에듀.
- 조하연(2024), 「〈규원가〉에 나타난 원망과 그리움의 모순에 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71, 105-135.
- 최선경(2012), 「고려가요 의문문의 수사적 의미와 기능」, 『수사학』 17, 119-148.
- 하정훈(2022), 「한국어 판정, 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의 통시적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습자의 고전시가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사 지식 활용 방안 연구 — 「규원가」, 「정석가」를 중심으로

김은애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가 고전시가 감상에서 겪는 해석의 어려움과 수동적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사 지식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고등학교 2학년 39명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규원가」, 「정석가」 등을 제재로 중세국어 의문문 체계와 선어말어미 ‘-오-’를 선정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화자의 상황 및 내용 이해와 직결되는 국어사 지식은 감상을 정교화하는 단서로 기능할 수 있으며, 표기·음운·기초 어휘 등의 기본 지식과 표현 의도 파악을 돕는 심화 지식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현대어 풀이(기초) → 문법적 단서 포착(심화) → 심층적 정서 수용(확장)’ 수업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문법 지식을 의미생성과 이해를 위한 실천적 언어 자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문학 능력과 문법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고전시가와 국어사 지식 통합 교육, 규원가, 정석가, 중세 국어 의문문 체계, 화자표시 선어말 어미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to Enhance Learners' Reception Competence of Classical Literature

— Focused on Kyuwonga and Jeongseokga

Kim Eunae

This thesis offers insightful suggestions regarding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utilizing Korean language history in high school classic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iddle Korean interrogative system and the pre-final ending “-오-” were selected as core grammatical elements and applied to Kyuwonga and Jeongseokga. The findings confirmed that linguistic knowledge significant for appreciation is directly linked to understanding the speaker's socio-cultural context and the content of the work. Thus, a hierarchy of knowledge can be established, ranging from foundational elements (orthography, phonology, and basic vocabulary) to advanced elements that facilitate a nuanced understanding of expressive intents. Accordingly, a specific instructional design was proposed comprising three stages: ‘Modern Korean Translation (Foundation) → Capturing Grammatical Clues (In-depth) → Deep Emotional Reception (Expan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acilitates the integrated improvement of both literary and linguistic abilities by transforming grammatical knowledge into a practical linguistic resource for generating and interpreting meaning.

KEYWORDS Integrated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and Korean language history, Kyuwonga, Jeongseokga, The Middle Korean interrogative system, speaker-indicating pre-final ending